

보호관찰 청소년의 상담수강명령 이행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참여 청소년들의 긍정적 변화를 중심으로*

문희정** · 양성은***

초 록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상담수강명령 이행에 대한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는 범법 행위를 자행한 후, 상담수강명령 처벌을 받은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Giorgi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4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상담수강명령 이행에 대한 경험을 분석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삶의 모습, 부모-자녀 관계, 또래 및 학교 관계, 상담수강명령 처벌 과정, 상담 과정, 종결 후의 감정 및 변화, 상담 후의 생활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들은 비행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탐색하고 일상생활에 적용시켜보는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하였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상담수강명령 이행에 대한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수강명령, 현상학적 연구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석사

***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전공 부교수, 교신저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삶의 전 생애 중 가장 많은 위험과 기회, 좌절과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단계이다(Erikson, 1968). 하지만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말미암은 핵가족화와 가족해체 등은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며, 청소년들은 환경의 변화로 탓에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는데 이는 청소년 비행의 원인이 된다. 청소년의 비행은 무엇보다도 초기에 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족해체 등으로 가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교는 비행 청소년의 반복되는 비행 탓인 교사의 무관심 등 때문에 학교에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지 못하고, 이를 대체할 사회적 지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청소년 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년범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지만, 강력범과 재범의 증가로 보아 상당수가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경찰청, 2010).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반사회적 경험으로 일시적으로 문제 상황이 변화되는 듯한 경험을 하고 이러한 경험이 비행을 지속하게 하는 가능성을 가진다(Nagin & Paternoster, 1991). 또한, 비행청소년은 학교폭력 이외에도 알코올 중독과 같은 다른 문제 행동을 가질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Bender & Löösel, 2011),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개입이 요구된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수를 줄이고, 비행 문제를 예방 또는 치료하여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향상하고, 재범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개입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송지영, 2005; 양승남, 2003; 이상주, 2001; 주영아, 2001).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자아효능감 증진(송지영, 2005; 이호동, 2010; 최광성, 2006), 자아개념 및 공감능력 증진(한정윤, 2009), 도덕성 향상(최빛내, 2009), 사회성과 대인관계능력 증진(박해진, 2006; 양봉환, 2008; 이상하, 2009), 진로탐색 및 결정(문성숙, 2010; 정인주, 2009) 등이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보호

관찰 청소년들은 집단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분노 경험을 인정하고,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억압되어 있던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분노를 분출시킬 수 있는데 도움을 주었다(윤석원, 2010). 김연미(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집단미술치료는 소년원 청소년의 충동성과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미련(2009)의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소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자아정체감과 대인관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아직까지 보호관찰 청소년의 정서적·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질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손순용(2008)은 보호관찰의 경험을 한 청소년이 가족과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사회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재사회화되는 과정을 질적으로 탐색하였다. 장희라(2010)의 연구에서도 보호관찰 청소년이 스스로 개인적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공감하고 적응하며 완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과정에 대해 탐색하였다.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협력적인 상담관계는 내담자가 치료를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본다(Martin et al., 2000; Horvath & Symonds, 1991). 즉,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상담자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상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소년범은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보호처분에 의한 처벌은 대부분 일정 기간 내에 재교육을 받거나 보호관찰소에서 운영하는 예절교육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그치고 있다. 최근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 교육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긍정적인 성인 모델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부터 ○○지방법원은 보호처분 1, 2호 처분이나 1, 2, 4호 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교육수강명령이 아닌 상담수강명령 처벌을 내렸다. 상담수강명령을 받는 보호관찰 청소년은 상담수강기관에서 청소년동반자에게 10시간의 상담을 받는다. 일정 기간 내에 10시간의 상담시간을 성실하게 이행한 청소년의 경과보고서는 법원에 제출된다. 또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청소년은 재범 방지의 목적으로 다시 재판을 받은 후, 처벌을 받게 된다.

○○지방법원의 상담수강명령 처벌과 더불어, 2011년부터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와의 업무 협조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처

벌의 변화에도 2009년부터 시행한 상담수강명령을 이행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내려진 상담수강명령 이행에 대한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와 그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마련에 발판이 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은 경험에 대한 개인적 기술로 출발한다(Polkinghorne, 1983). Giorgi의 분석방법은 상황적, 구조적 진술에서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독특성을 자세히 설명한다. 또한, 전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적 진술에서 통합하는 특성이 있다. 현상학적 분석방법은 연구참여자와의 면접을 통해 경험적이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살아 있는 경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상학이란 주관적 경험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연구자의 현상학적 직관에 의한 환원(reduction)을 통해 이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실재적이며, 의도적이고, 정체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내재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첫째, 연구자가 한 번에 전체 대상을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실제 대상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파일을 참고한다. 객관적인 실재가 아닌, 비실재적이며, 주관성에 속한 것이라고 해도 제거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자연과학은 모든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억제한 후 독립변수의 영향을 관찰하는 실험실 세팅을 전제로 한 인과관계를 추구한다. 하지만 현상학에서는 인과관계에 한정적이지 않고, 동기가 부여되고 의도적인 관계를 강조한다. 셋째, 자연과학에서 다루는 물질은 본질적으로 사물에 속하는 것으로 이것은 과거에 형성된다. 하지만 현상학에서 다루는 대상의 정체성은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재형성되는 것이므로 종결이 없다고 본다. 또한, 정체성의 성취는 비실재적이며 비가시적이다. 넷째, 내재적 대상은 의식과 같은 선상에서의 흐름에 속하여, 세상 안에 있는 초월적 대상이 아닌 연구참여자의 표현행

위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자는 상담수강명령 처벌을 받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처벌 과정과 상담 경험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어떤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였는지를 그대로 기술하고,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데 질적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이론적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가장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방법원의 상담수강기관인 ○○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수강명령을 이행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상담을 통한 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수강명령 처벌을 내리는 것이므로 범법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셋째, 경찰백서(2010)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 중 14~17세가 가장 많으므로 연구참여자의 나이를 만 14~17세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0년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이루어졌다. 개별심층면접은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상담이 진행되었던 카페에서 1회씩 진행되었으며, 면접 시간은 평균 58분이 소요되었다. 면접이 끝난 후 연구자는 현장노트(field note)를 기록하였다. 또한, 상담을 진행했던 상담자에게 동의를 구한 후 상담 회기보고서를 연구 자료에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구체적인 심층면접 내용은 상담수강명령 처벌 과정, 상담수강명령에 대한 감정, 상담 진행, 상담 종결 후의 변화 등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의 나이는 평균 만 15세이며, 본 연구참여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코드	성별	연령 (만)	학력	가족형태 (부모)	동거인	위반 법률 사항
1	여	14	중2	동거	부, 모, 남동생, 여동생	공동공갈
2	여	13	중2	동거	부, 모, 오빠	공동공갈
3	여	14	중2	이혼	부, 조모, 조부	공동공갈
4	남	15	중2, 중퇴	동거	부, 모, 여동생 2명	공동폭행
5	여	13	중2	이혼	부, 조부, 삼촌, 언니	공동공갈
6	여	16	고1	동거	부, 모, 남동생, 여동생	공동폭행
7	남	14	중1	이혼	모, 누나	특수절도
8	여	14	중2	동거	부, 모, 형	공동공갈
9	남	14	중3	이혼 (모 사별)	부, 누나(가출)	특수절도
10	남	14	중3	동거	부, 모, 조모, 조부, 남동생,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11	남	15	중3	이혼	모, 형	절도
12	남	17	고1, 중퇴	동거	부, 모, 누나 2명(결혼)	절도,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13	남	14	중3	동거	부, 모, 조모, 형, 누나	공동상해
14	여	17	고2	동거	부, 모, 오빠	공동폭행
15	남	15	중3	이혼	부, 누나	상해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상담수강명령 이행 경험 의미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Giorgi의 4가지 분

석과정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전체적으로 인식하기(sense of the whole) 단계로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주어진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전사본을 반복해서 읽으며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자 노력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단위 구분하기(breaking of the meaning unit) 단계로 전사본을 읽으며 상담학적 관점에서 의미의 전환이 일어난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특정한 표시를 함으로써 '의미단위(meaning unit)'를 구분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의미단위를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기(transformed meaning unit)로, 앞의 단계에서 구분해놓은 의미단위들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문적 표현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이때 확인된 학문적 용어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현상학적 관점에 의해 상식의 언어를 사용하여 전환하였다. 마지막 단계인 구조로 통합하기(synthesis of structure) 단계에서 학문적 용어로 기술된 의미단위들로부터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상황적, 구조적 기술을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의 독특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의 독특한 경험 구조를 통합하여 일관성 있는 일반적, 구조적 기술로 통합해내었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15명의 연구참여자를 심층 면접한 자료에 기반을 두어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상담수강명령 이행 경험'의 본질적인 내용과 구조를 도출하기 위해 Giorgi의 분석과정을 적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에서 말하는 경험의 본질적 구조는 연구참여자 개개인이 겪은 경험들의 나열이 아니라 연구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에서 도출되는 주제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표 2> 보호관찰 청소년의 상담수강명령 이행에 대한 경험

의미의 통합	범 주	주 제
범법 행위를 자행함 처벌 과정	경찰서와 법원 경험	상담 처벌
처벌에 대한 억울함 부모의 불신과 무관심 친구들의 놀림 교사의 부정적인 시선	상담 처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상담에 대한 양가감정 자기 개방 상담자와의 만족스러운 관계 상담에서의 전환점	자기 개방의 과정	
범법 행위에 대한 반성 고민 해결의 노력 문제 행동의 감소	자기 탐색의 시간	
상담 환경에 대한 개선 상담 형식에 대한 변화	상담에 대한 바람	상담 경험

1. 상담 처벌

1) 경찰서와 법원 경험

(1) 범법 행위를 자행함

청소년기에는 미리 결과를 예측해보는 가설적·연역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지만, 비행 청소년은 이러한 사고가 어렵다. 비행 청소년들은 순간의 즐거움과 이익만을 위하여 범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또한, 공갈, 절도, 폭행 등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인 받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비행 청소년들은 그런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반복하게 된다. 15명의 연구참여자 중 2명(#1, 4)은 법원 출석 명령을 2회 이상

받았고, 15명 중 11명의 연구참여자는 경찰서 출석 경험이 2번 이상이었다.

많이 빼앗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사먹느라 [증명사진을 찍을]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도 아니고 천 원씩만 뺏았어요... (#8)

자전거 절도로 법원에 가게 됨. 집에 가는 길에 다리가 아파서 길에 세워져있던
자전거를 타고 감. ... 베란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해서 들어가서 화장대 위에
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가지고 나옴. (#10 회기보고서)

청소년은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이라는 중화 기술을 사용한다. 자기
가 저지른 행위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일탈행동에 대하여 사실상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합리화하려고 한다. 비행 행동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학교 규
칙, 교사의 태도, 무책임한 부모 등의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킨다.

어쩔 수 없었어요.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것이지만 선배들도 매일 때려요. 우리는 매일
맞았는데 선배들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때릴 수밖에 없었어요. 학교 전통이 그래요.
(#13)

(2) 처벌 과정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비행 행동을 일삼는 도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
유로 경찰서 및 법원 출석 경험이 낮설고 새로운 경험이 아니었다.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경험만으로는 범법 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작용
하지 않았다.

경찰차를 타고 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래서 완전 쪽팔렸어요. 근데 경찰차
를 타고 가는데 신기하기는 했어요. 가는데 경찰 아저씨들이 얘기도 막 해주고, 무섭
지 않았어요. 하나도. (#3)

비행 행동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의 반응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 부모

로서의 역할에 지쳐버린 부모들은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를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반복되는 비행 행동과 그로 말미암은 부작용이 부모-자녀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엄마가 이런 것 때문에 자주 걸리고 하니까 짜증이 났었나봐요. 학교 불려가고 그러는 거 진짜 싫다고, 법원 안 간다고 그래서... 그냥 친구네 엄마 갈 때 같이 갔어요.
(#2)

2) 상담 처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1) 처벌에 대한 억울함

청소년기에는 이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범법 행위를 자행하였고 그 때문에 상담수강명령이라는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한 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왜곡된 사고를 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상담수강명령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하고,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

그냥 하는구나, 귀찮다, 안하면 안 되나 그랬어요. 상담이 10시간이라는 것도 짜증나서 싫고, 무슨 상담을 10시간이나 하겠다는 건가 했죠. (#4)

법원에 가는 것도 짜증났었어요. 근데 상담을 받으라고 하니까 진짜 짜증났어요. 다른 애들도 경찰서랑 법원 가도 그냥 왔는데... (#8)

(2) 부모의 불신과 무관심

청소년기는 자율성과 독립을 찾으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에 적절한 활동에 대해 부모와 청소년들은 의견을 일치하지 못한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또래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더 강하게 독립을 원하고, 부모와의 마찰에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반발심이 비행 행동을 하고, 다시 부모와의 마찰이 심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한다. 부모-자녀 관계

에서 부적절한 의사소통 방식이 이루어지면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게 된다.

저번에 학교에서 누가 맞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전 그날 학교 안 갔거든요. 안가고 그냥 잤는데... 개가 제가 때렸다고 했더니 때릴 때만 학교 왔던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선생님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4)

엄마, 아빠도 물어보지도 않고 서로 궁금해 하지 않고... 대화를 안하 는게 편해요. 괜히 얘기하면 싸우게 되거나, 서로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그냥 한 집에 살기만 하는거지, 남 같은 느낌이 들어요. (#6)

그냥 이유도 없이 막 때리니까... 저번에 핸드폰을 머리 옆에 두고 잤는데 그거 때문에 엄청 맞았어요. 전자파 맞는다면서 죽도록 패고... 좀 두꺼운 전깃줄 있는데요. 그걸로 말아서 때려요. (#9)

(3) 친구들의 놀림

비행 청소년들은 일탈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비행집단의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형성된 또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탈 행동을 한다. 이러한 또래 관계가 형성되면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비행 행동에 대한 불감증이 생겼다. 비행 행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반성적 사고는 하지 못한다. 오히려 비행 행동을 통해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복싱하고 이러면서 주먹이 셌어요. 이제는 덤비지를 못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좋아요 편하고. 애들도 이제는 인정해서 편해졌고... 자랑스러운 거죠 이게. 완전 편해요. (#4)

비행 친구들과의 어울림이 재일탈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친구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친밀감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친구로부터의 위로 등으로 인하여 만남을 지속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불감증 탓에, 범법

행위를 하였어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더 심한 비행 행동을 일으키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고, 자신들의 생각에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비행 행동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서 비웃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애들은 그냥 왜 걸렸냐고 그랬어요. 운도 나쁘다고... 그런 걸 1000원을 뺏은 것으로 걸리는 게 어디 있냐고, 애들 때린 적도 있고 했었는데... (#8)

(4) 교사의 부정적인 시선

획일적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은 교사에 대한 반발, 구조화된 생활에 대한 인내력 부족, 숨 막힐 듯한 학교 공간으로부터의 탈출을 시도하는 등 청소년의 부적응과 비행을 부추기게 된다(이소희 외, 2005).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탈출의 방법으로 비행 행동이라는 부적절한 선택을 하였다. 그 탓에 부모와 마찬가지로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

담임이 좀... 완전 개념이 없어요. 친구들 앞에서 그냥 대놓고 말해요 법원 갔다고... 기분 나빴어요 진짜... 살인충동? (#3)

강전(강제전학) 당했잖아요. 그 때 처음 오는데 담임이 완전 재 애 패서 강전 당한 거니까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그랬대요. 진짜 짜증나게... 애들이 선입견을 갖고 날 볼 꺼 아니에요. (#13)

법원 갈 때 학교 빠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담임이 알았는데... 담임이 그 얘기 다 듣고 완전 뭐라고 욕하고 그랬어요. 허벅지 맞았어요... 내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하면서... (#15)

2. 상담 경험

1) 자기 개방의 과정

(1) 상담에 대한 양가감정

청소년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어른과의 만남을 거부한다. 하지만 비행 청소년은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혀 학교 상담, 외부 전문가로부터의 상담 등을 권유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담을 비자발적인 상담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비밀 보장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

학교에서 상담 많이 해봤어요. 담배나, 지각이나 이런거 많이 걸리니까... 근데 학교에서 상담 해도 맨날 똑같은 얘기, 아는 얘기, 계속 계속 그런거만 하니까... 그래서 상담 싫었는데... 그리고 맨날 담임한테 다 얘기할 꺼 같고 그래서 싫어요. (#3)

일상적인 학교생활, 비행 행동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 등에 대한 상담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상담수강명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하였다.

반성문 써야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할 것 같아서 싫었어요. 왜 잘못했는지, 법원에 가서 반성은 했는지 이런거... 학생과처럼 그런거를 10시간이나 해야되는 줄 알고, 그래서 진짜 싫었어요. (#8)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처벌을 받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보호관찰 청소년 중 일부는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화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려는 마음을 갖고 상담을 시작한 청소년은 상담의 효과는 증대되고, 더욱 더 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상담이 별로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처음에 상담하려고 얘기하다보니... 꿈이 없으니까 꿈에 대해서 물어 봐야겠다 생각했어요. (#9)

(2) 자기 개방

비자발적인 상담 때문에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자기 개방을 원치 않은 상태로 상담을 시작하였다. 처벌을 받거나, 교육적인 강의를 듣게 될 것으로 예측했던 청소년들은 마음을 잃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상담자와의 긍정적인 라포 형성으로 점차 자기 개방이 가능해진다.

선생님이 얘기할 때 내 얘기 들으시면서 선생님이 조금 울먹거리셔서... 그리고 좀 얘기할 때 툇이나, 아 이런 것도 아시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좀 많이 공감대가 되는 것 같은.. (#14)

(3) 상담자와의 만족스러운 관계

상담자가 내담자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포용해주고 공감해주는 모습을 통해 내담자는 자기 개방을 하고,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와 함께 탐색을 한다. 잔소리하는 또 다른 엄마, 또 다른 교사가 아닌 마음을 잘 알아주는 어른을 처음 만나 신선한 경험을 하게 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더 높았다.

그나마 상담선생님이 아줌마가 아니어서 괜찮기는 했어요. 근데 상담 하다가, 2번째 인가? 3번째인가? 오해 받았을 때 선생님이 얘기 잘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진짜 좋았어요.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얘기해주고,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어요. (#4)

상담자와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한 후에는 내담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탐색하고, 상담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 상담을 받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상담을 받으러 오고, 상담을 받은 후 돌아가는 그 과정도 상담의 과정이라고 한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상담자와의 관계가 처벌의 과정이라는 생각보다는 진심으로 마음을 만난 후에 도움을 받고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상담자의 도움으로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 연구참여자들은 추후에 도움이 받고 싶을 때 상담을 더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상담선생님하고 그만 만나야 돼서 진짜 아쉬웠어요. 내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느낌을 주는 어른이 별로 없잖아요. 엄청 좋았는데... 그래서 상담 끝나고도 선생님한테 연락하고 그랬어요. (#14)

(4) 상담에서의 전환점

청소년기에는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강한 욕구에 반응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 탓에 차분하게 집중을 하여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상담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내담자는 의도적으로 상담 시간에 차분하게 집중을 하게 된다. 그 덕분에 자기 탐색을 하고, 왜곡된 사고를 탐색해보고 올바른 사고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유일하게 선생님이 얘기도 잘 들어주고, 내 마음 진짜 이해해주는 거 같아서 진짜 좋았어요. 그 때 그러고는 상담도 엄청 잘하고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변해야지 생각했죠. 그래서 애들 패는 것도 안 하는거 연습하고 그랬어요. (#4)

상담하면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거 얘기하고, 울고 그러고... 엄마한테 편지쓰기하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내 마음 조금 알아주고 그러는 거 같아서... (#6)

2) 자기 탐색의 시간

(1) 범법 행위에 대한 반성

비행 청소년은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 반성을 하지 못한 채 재일탈을 한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서 점차 범법 행위에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반성이 아닌, 범법 행위를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탐색을 통해 그 감정을 상담에서 풀어내고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탐색하는 등의 과정을 경험한다.

흠치는거 이런거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갑자기 충동이 생겨서 하고 그런건데... 그거 하지 말아야 생각만 했는데 그게 잘 안되었으니까... 그래서 법원까지 갔잖아요. 그거 조절하는 거 상담하면서 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7)

(2) 고민 해결의 노력

청소년인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고민에 대한 해결의 시작을 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조건 없는 비난이 아닌 존중해주고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면서 상담자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상담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범법 행위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상담자와 함께 고민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엄마가] 성적은 올리라고 매일 그러는데, 공부를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는데... 상담하면서 성적 얘기하는 거 도움 된 것 같아요... 상담에서 공부에 대해 얘기하고, 선생님 말이 좋은 충고고 그랬어요. (#5)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잦은 마찰 때문에 부적절한 의사소통만 하고 그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상담을 통해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부모-자녀 상담, 부모에게 편지쓰기, 문자메시지 보내기 등의 방법을 탐색하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게 된다.

엄마, 아빠를 피하려고 하고 서로 터치 안하려고 아예 피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서로 불편하고 집에 있는 것도 싫고 그랬는데... 상담을 하면서 엄마, 아빠랑 대화하는 연습도 해보려고 하고... 뭔가 엄마한테 얘기를 꼭 하지 않아도, 엄마에 대한 스트레스 풀고 그래서 좋았어요. (#14)

(3) 문제 행동의 감소

비행집단과의 또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탈 행동을 반복하는 청소년들은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상담을 통해서 잘못 인지하고 있었던 사고들을 바로잡고, 문제 행동들을 탐색하면서 감소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애들 패는 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생각 없이 막 패고 그러지 말고... 좀 이제 그런 거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진짜로 때릴 뻔한 적 있었는데, 상담 생각나서 그냥 참았어요. (#15)

연구참여자 중 4명(#6, 9, 12, 14)은 상담을 통하여 처음으로 자신에 대해서 오랜 시간 생각해보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고, 상담을 통한 자기 탐색은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였다.

장점, 단점 찾기랑 꿈 찾기 이런 거 다 하다보니까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기 이런 연습도 된 것 같고... 상담에서 얘기한 게 막 생각나고 그래서 일찍 일어나기 연습도 하려고 노력하고, 좋아졌어요. (#12)

3) 상담에 대한 바람

(1) 상담 환경에 대한 개선

청소년기에는 과장된 자의식 때문에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상상적 청중(imaginary audience)의 특성이 있다. 범법 행위라는 특수한 경험을 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시끄럽고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카페나 공원 등의 공개되어 있는 장소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는 경험하였지만, 제대로 상담 장소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다.

장소가 시끄러우니까 일상, 그냥 뭐 했냐 이러면서 안부나 묻고 그러는 거요... 좀 조용하고, 다른 사람이 옆에 없이 그런데서 진지한 상담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교통수단이요. 그거 좀 바뀌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걸리고 오는데 너무 시간 걸리고... 버스비도 아까워서 싫었어요.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2)

(2) 상담 형식에 대한 변화

청소년의 상담은 한 회기 당 청소년이 집중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인 50분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은 1시간이 아닌 2시간씩이나, 원할 때 자유롭게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였다.

그냥 1시간 말고 한꺼번에, 좀 2시간씩이나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나게 하면 좋겠는데... 너무 일주일에 1번씩 하는 건 좀 너무 조금씩인 것 같은데... 1시간은 뭐 별로 하는 거 없이 금방 지나가버리기도 하고, 10주나 해야 되서 그거도 좀 별로고... (#10)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비행 친구들과의 어울림으로 노래방, 카페 등에서의 놀이로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담을 받는 동안 문화 활동을 경험하는데, 이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영화 및 연극 관람, 도서 구매, 박물관 견학 등으로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였던 경험을 할 수 있는 상담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놀이 문화를 접할 기회이다.

선생님이랑 가서 책 고르고, 뭔가 삶의 희망을 얻는 그런 책을 추천해주셔서... 그런 거 읽으니까 좋았어요. (#9)

연구참여자 중 5명(#1, 4, 6, 12, 14)은 10시간이라는 정해져 있는 상담 시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꼈고, 10번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면 몇 회기 정도를 더 하거나 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더 받고 싶다고 하였다.

만나고 헤어진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계약 같은 거... 그런 거였잖아요. 뭔가 좀 계약이니까 약속을 막 잡아서 만나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틀이 없어진... 그 잡아주는 틀이 없어지니까 서운했어요. (#14)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행 행동을 일삼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상담수강명령을 통하여,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포용해주고 공감해주는 어른을 만나는 경험에 대해서 질적으로 살펴보았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인정받을 수 있고,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비행 행동을 일삼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부모나 어른들의 비행 행동에 대한 비난, 체벌, 무관심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수강명령 처벌이라는 비자발적인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어른을 만나는 낯선 경험을 한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정체성 혼란에 대한 회피와 부모로부터의 자율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인정해주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다. 하지만 비행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 그들의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을 내면화하게 되어 비행 행동을 하게 된다(남현미, 1999). 비행 행동 방식이 내면화된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범법 행위를 자행하여도 이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임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은 처벌을 받을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사고하고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상담수강명령을 통해서 내면화된 잘못된 행동을 긍정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탐색하였다. 단지 상담수강명령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하여 내면화된 잘못된 인지에 대해서 변화를 시키는 방안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가정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낄수록 비행에 이른다(김정은, 2010). 또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탓에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 빠지는 청소년은 부모의 양육태도에 반발하기 위해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신동숙, 2007).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에 부모들은 불신과 무관심, 폭력의 반응을 보였고, 그에 대한 반항심으로 또다시 비행 행동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호관찰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심과 적극적인 상담 및 대처를 통해 함께 해결해내고자 하는 부모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행 행동을 하는 청소년일수록 또래들과의 동조성이 높고, 폭력을 증가시키는 자극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윤혜미·남영옥, 2007). 반복되는 비행 행동에 대한 불감증 탓에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단체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개별

탐색이 가능한 상담수강명령이 적절한 처벌이었다. 하지만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다시금 비행 행동을 자행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있고 보호관찰 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이 요구된다.

청소년기에는 대부분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입시위주의 학업중심 학교 교육과 구조화된 생활에 비행 청소년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 행동을 하게 된다. 교사들은 처벌, 정학 등으로 비행 행동을 감소시키려고 하고, 이런 처벌은 비행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시 비행 행동을 하고 싶은 반항심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인원의 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교사의 처지에서 비행 청소년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그 때문에 교사나 상담교사가 비행 청소년과 상담을 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비행 청소년에게 전념할 수 없는 실정과 학교상담실의 상담교사와 담임교사와의 근접성이 높다는 이유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였다. 또한, 상담자라는 느낌보다는 또 다른 교사의 느낌을 받아 솔직히 마음을 털어내지 못하였다. 학교 상담교사의 독립적인 공간을 비롯하여 상담의 가장 중요한 비밀 보장의 법칙 등을 학생들이 확실히 할 수 있게 하여 근접성이 높은 학교 상담실의 제도를 더 보강해야 한다.

상담이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하여 탐색해보고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면서 점점 새롭게 변형되어 내담자의 인지구조 내에 내재화된 후에야 그 의미가 있다(Straker & Becker, 1997). 이처럼 상담수강명령은 단기상담에 속하지만, 이를 통하여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탐색해보고 일상생활에서 시도를 해보는 경험에 그 의미를 두어야 한다.

비행 청소년은 대인관계가 곤란하고 의사소통이 비효과적이며, 치료 동기가 낮고 내성하는 능력이 낮은 심리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통찰 지향적 상담보다는 지지상담에 더 잘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허재홍, 1995). 상담수강명령 처벌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수용, 공감, 인정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인 상담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처벌의 일환인 상담이고 단기상담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을 무시한 채 상담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교육적인 부분과 지지적인 부분을 포함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상담수강명령 처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인터뷰가 진행되는데, 상담자와 라포 형성이 잘되거나 상담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한 내담자가 연구에 참여의사를 표현하였다. 상담자와 라포 형성이 잘되지 않았거나 지시적이고 교육적인 상담을 경험한 내담자는 상담수강명령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하는 예도 있다. 이 때문에 본 연구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동기가 낮거나 강제적인 상담으로 때문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탐색하지 못한다는 것에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호관찰 청소년이 바람직한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포용해주고 공감해주는 상담자와 수용 받고 따뜻한 상담 분위기가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소년법의 재범이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비행 행동의 심각성에 대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막기 위한 일환인 상담수강명령 이행 경험에 대해서 질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상담수강명령 처벌은 법 밖 행위에 대한 탐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스스로 모습을 탐색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문제 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탐색해보고 일상생활에 적용해볼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상담수강명령 처벌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도울 수 있는 지원 서비스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인 보호관찰 청소년은 고위험군인 위기 청소년임에도 상담수강명령에서는 상담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또한, 상담이 종결된 후에는 다른 개입이 없이 다시 위험에 노출되어 비행이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담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족과 학교, 서비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의 협력적 노력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예방 교육 및 학교 상담실 운영 등 덕분에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회성의 교육이나 학교 처벌의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질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비행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사회성 훈련 등의 예방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위기 청소년의 생활을 점검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비행 행동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아웃리치 활동으로 위기 청소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심리검사 지원 및 음식 제공, 상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웃리치 활동의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지원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

여 더욱 더 많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위기 청소년들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개입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경찰청(2010). 경찰백서 2010. 서울: 경찰청.
- 김연미(2010). 집단미술치료가 소년원재소 비행청소년의 충동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은(2010).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가정환경유인에 관한 차이분석.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현미(1999).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 특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성숙(2010). 보호관찰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비교.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해진(2006). 협동게임 프로그램이 보호관찰대상 남자 청소년들의 정서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순용(2008). 비행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적 연구: 보호관찰을 받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지영(2005). 현실상담을 적용한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문제해결력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동숙(2007). 부모가 지각하는 청소년 비행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봉환(2008). 사회적 유능성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대인관계기술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승남(2003). 비행청소년을 위한 인지행동훈련의 효과: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석원(2010). 소년 보호시설 위탁 청소년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에 관한 집단상담. 전주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희미·남영옥(2007). 청소년의 위험행동 관련요인: 심리정서적 특성의 매개 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회, 제23권 제1호, pp. 127-153.
- 이미련(2009). 에니어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대인관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주(2001). 보호관찰 청소년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경주지역 선도조건주 기소유예 청소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하(2009). 비행청소년을 위한 계슈탈트 집단치료의 효과 및 치료 요인: 공격성과 대인관계능력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희 · 도미향 · 정익중 · 김민정 · 변미희(2005). 청소년복지론. 서울: 나남출판.
- 이호동(2010). 자립의지증진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립의지 및 자아효능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라(2010).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복귀과정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주(2009). 영화를 활용한 진로 집단상담프로그램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영아(2001). 복교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사회적 유능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광성(2006). 사회적 유능성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빛내(2009). 품행장애 성향의 청소년을 위한 도덕성 향상 집단 상담 프로그램: Wilson의 도덕성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정윤(2009). 사랑증진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재홍(1995). 비행유형에 따른 구조적 집단상담의 효과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nder, D., & Löösel, F.(2011). Bullying at school as a predictor of delinquency, violence and other anti-social behaviour in adulthood.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Vol. 21 No. 2*, pp. 99-106.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Horvath, A. O., & Symonds, B. D.(1991). The relation between working alliance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38, pp. 139-149.

Martin, D., Garske, J., & Davis, M.(2000). Relation of therapeutic alliance with outcome and other variables: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68, pp. 438-450.

Nagin, D. S., & Paternoster, R.(1991). On the relationship of past to future participation in delinquency. *Criminology*, Vol. 29 No. 3, pp. 163-189.

Polkinghorn, R.(1983). Phenomenological research. In R. S. Valle, & S. Hall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 in psychology* (pp. 41-60). New York: Plenum.

Straker, G., & Becker, R.(1997). The lived experience of change in psychotherapy : client and therapist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Vol. 32 No. 1, pp. 307-322.

ABSTRACT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Juvenile Delinquents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Counseling Attendance Orders : A Focus on Positive Changes for Study Participants

Mun, Hee-Jeong* · Yang, Sung-Eun**

This research is a qualitative study into the experiences of juvenile delinquents in terms of counseling attendance orders.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15 adolescents who had received a court order to attend counseling after committing a crime.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4 step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suggested by Giorgi. To analyze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s receiving such court orders for counseling, their lifestyle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friends, and school, the nature of the counseling attendance order and the counseling itself, and any changes in their emotions, and their lives after counseling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the study participants experienced positive changes through those programs which attempted to find an effective plan for dealing with their delinquency and applied it to daily life. This study has a number of implications regarding qualitative research into the experiences and performance of counseling orders as part of the wider effort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crime by juvenile delinquents.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t, counseling attendance order, phenomenological research

투고일 : 8월 25일, 심사일 : 12월 1일, 심사완료일 : 2월 14일

* Master, Inha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Consumer and Child Studies Major, Inh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